

# ◆ 08년 3월 고1 17~20번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 특히 학문적 활동에서 추구하고 있는 진리란 어떤 것인가?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춘 지식을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의 세 가지 학설이 있다.

‘대응설’에서는 어떤 명제나 생각이 사실이나 대상에 들어맞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믿는다. 가령 앞에 있는 책상이 모나고 노란 색깔이라고 할 때 우리의 시각으로 파악된 관념은 앞에 있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성질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늘 거울과 같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일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감각이 언제나 거울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각 기관의 생리적 상태, 조명, 대상의 위치 등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감각 기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은 외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는 못한다.

‘정합설’은 관념과 대상의 일치 가능성이 없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이 옳은지 그른지 실제에 비추어 보아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중 옳다고 판별된 체계에 비추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지식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모순됨이 없이 들어맞는지 여부에 의해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바로 정합설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 명제이지만,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의 경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감각적 판단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칭 판단\*이나 고차적인 과학적 판단들의 진위를 가려내는 데 적합한 이론이 정합설이다.

하지만 정합설에도 역시 한계가 있다. 어떤 명제가 기존의 지식 체계와 정합할\* 때 ‘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지식 체계의 진리성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또 그 이전의 지식 체계와 정합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는 더 이상 소급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결국 기존의 지식 체계와 비교할 수 없게 된다.

실용주의자들은 대응설이나 정합설과는 아주 다른 관점에서 진리를 고찰한다. 그들은 지식을 그 자체로 다루지 않고 생활상의 수단으로 본다. 그래서 지식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거나 실제로 유용할 때 ‘참’이라고 한다. 관념과 생각 그 자체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행동을 통해 생활에 적용되어 유용하면 비로소 진리가 되고 유용하지 못하면 거짓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행동을 통한 실제적인 결과를 기다려야 비로소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실행해 볼 수는 없다. 또한 ‘만족스럽다’든가 ‘실제로 유용하다’든가 하는 개념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옳고 그름을 ①가리는 논리적 기준으로는 불명확하다. 바로 이 점에서 실용설이 지니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 전칭 판단 : 대상의 모든 범위에 걸쳐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판단  
\* 정합할 : 모순이 없이 꼭 들어맞음

17. 위 글이 어떤 과제물의 내용이라고 할 때, 주어진 과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리 추구의 목적을 구체화하여 설명하라.
- ② 학문의 성립과 진리 사이의 관계를 밝히라.
- ③ 진리 여부의 판정이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하라.
- ④ 학문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정리하라.
- ⑤ 진리의 판단과 관련된 학설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라.

1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대응설에서는 사실이나 대상과의 일치 여부로 진리를 판단한다.
- ② 대응설은 인간의 감각이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 ③ 정합설에서는 경험을 통한 검증 가능성을 진리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 ④ 정합설은 전칭 판단이나 과학적 판단의 진위를 가리는 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 ⑤ 실용설에서는 실제 생활에서의 유용성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19. 위 글을 참조할 때, <보기>의 상황에 대해 바르게 평가한 것은?

< 보 기 >

동일한 문제 상황에서 한 사람은 A라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한 사람은 A와는 상반되는 B라는 신념에 따라 행동했는데 둘 다 성공하는 경우, 한 사람에게는 A가 진리이고 B는 진리가 아니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B가 진리이고 A는 진리가 아닌 결과가 나오게 된다.

- ① 실용설이 지닌 한계를 보여 준다.
- ② 대응설의 높은 효용성을 보여 준다.
- ③ 대응설과 실용설의 통합이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 ④ 정합설은 반드시 대응설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 ⑤ 정합설에 따른 진리 판단은 전혀 실용적이지 못함을 보여 준다.

20. 밑줄 친 ‘가리다’의 의미가 ①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내 앞도 못 가리는 처지라 결혼은 꿈도 못 꾸다네.
- ② 키가 큰 사람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무척 답답했어요.
- ③ 낮을 심하게 가리는 아이라서 남을 보면 울기부터 해요.
- ④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튼튼해질 수 있단다.
- ⑤ 인재를 뽑을 때는 옥석을 가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 12-9평 17~20번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학문 활동에서 '진리' 또는 '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 이론은 진리이다'라고 말하거나 '그 주장은 참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이 있다.

대응설은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보라'라는 말에는 이러한 대응설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감각을 사용하여 확인했을 때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대응설은 일상생활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흔히 취하고 있는 관점으로 ㉠ 우리가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책상이 네모 모양이라고 할 때 감각을 통해 지각된 '네모 모양'이라는 표상은 책상이 지니고 있는 객관적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책상은 네모이다'라는 판단이 지각 내용과 일치하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관찰이나 경험을 통한 사실의 확인을 중시한다.

정합설은 어떤 판단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부합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진리로 간주하는 지식 체계가 이미 존재하며, 그것에 판단이나 주장이 들어맞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체의 운동에 관한 그 주장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거짓이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을 진리로 받아들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진위를 판별한 것이다. 이러한 정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기존의 이론 체계와의 정합성을 중시한다.

실용설은 어떤 판단이 유용한 결과를 낳을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어떤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보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유용하다면 그 판단은 참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은 창의력을 기른다'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학습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고 하자. 만약 그러한 학습 방법이 실제로 창의력을 기르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된다. 이러한 실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결과의 유용성을 중시한다.

1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④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핵심 개념의 변천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 ⑤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하면서 이를 변증법적으로 절충하고 있다.

18.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의 지식이나 판단은 항상 참이다.
  - ② 우리의 감각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 ③ 우리는 사물의 전체를 알면 부분을 알 수 있다.
  - ④ 우리의 주관은 서로 다른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
  - ⑤ 우리의 감각적 지각 능력은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19. 위 글에서 <보기>의 ㉡와 ㉢에 각각 관련되는 것은?

—<보 기>—

- 17세기에 스테노는 관찰을 통해 상어의 이빨과 설석(舌石)이라는 화석이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근거로 그는 화석이 유기체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 판단을 내렸다.
- 20세기 초에 베게너는 지질학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가 과거에 한 대륙이었다가 나중에 분리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당시의 지질학자들은 대륙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통설을 근거로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 판단을 내렸다.

- |       |     |
|-------|-----|
| ㉡     | ㉢   |
| ① 대응설 | 정합설 |
| ② 대응설 | 실용설 |
| ③ 정합설 | 대응설 |
| ④ 정합설 | 실용설 |
| ⑤ 실용설 | 정합설 |

20. 위 글에서 언급한 여러 진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수학이나 논리학에는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참인 명제도 있는데, 그 명제가 진리임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대응설에서는 발생한다.
  - ②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 판단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정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③ 새로운 주장의 진리 여부를 기존의 이론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기존 이론 체계의 진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정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④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관념은 그것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실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⑤ 실제 생활에서의 유용성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의 진리 여부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실용설에서는 발생한다.

◆ 12 수능 17~20번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빈학과’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 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 모형을 통해 ㉡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주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7.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 ② ‘그림 이론’으로 논리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③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 ④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라고 보았다.
- ⑤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하였다.

18. 위 글의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1점]

- ① 곰팡이는 생물의 일종이다.
- ② 물은 1기압에서 90℃에 끓는다.
- ③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 ④ 우리 반 학생의 절반 이상이 헌혈을 했다.
- ⑤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

19. ㉠:㉡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언어: 세계  
 ㉡. 명제: 사태  
 ㉢. 논리적 그림: 의미 있는 명제  
 ㉣. 형이상학적 주제: 경험적 세계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20.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 버리듯이,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버려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① ㉠은 자신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를 넘어서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은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은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 관념적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 18년 3월 고3 16~20번

[16~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며, 전기는 『논리 철학 논고』로 후기는 『철학적 탐구』로 대표된다. 그는 철학적 문제가 언어의 애매한 사용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함으로써 철학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그의 철학적 사유는 언어에 집중되어 있다.

『철학적 탐구』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고』에서 주장한 ‘그림 이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바탕으로 전기와 다른 주장을 펼친다. 그림 이론에서는 언어의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한 것이고, 문장들은 이러한 이름들이 결합한 것이라고 본다. 즉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후기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과 달리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에 있다.’라고 주장한다. 낱말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낱말이 사용되는 맥락과 규칙에 따라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언어의 낱말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에 따르면 그러한 다양성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낱말의 의미와 관련하여, 비트겐슈타인은 ㉠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가족 유사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닮음을 언어에 적용한 개념으로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을 의미한다. 예컨대 ‘놀이’라는 말은 카드놀이, 숨바꼭질, 끝말잇기, 축구, 야구 등 다양한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데, 이것들 전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은 없고 부분들 간에 겹치고 교차하는 성질들이 있을 뿐이다. ‘놀이’라는 낱말이 지칭할 수 있는 대상들 모두에 공통되는 성질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놀이’의 본질로 고정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본질은 없고 부분들 간에 수없이 상이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관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라는 낱말은 본질적인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놀이에 비유하여 ‘언어 놀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는데, 그것은 ‘언어와 그 언어가 뒤섞여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총체’를 의미한다. 그가 이와 같은 개념을 고안한 것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활동의 일부이며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 놀이는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는 것으로 그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며, 다양한 언어 놀이들은 공통적 본질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가족 유사성을 형성하며 언어와 그 언어에 연관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건축 현장에서 누가 “망치!”라고 말했다 때, ‘망치’는 그냥 놓여 있는 망치를 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치를 건네 달라는 목적으로 사용된 말이다. 그는 이 상황에서 ‘망치’가 망치라는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만 안다면 그 건축 현장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언어 놀이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맥락과 규칙을 알고 그에 따른 행위가 전제되어야 언어 놀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규칙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 또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삶의 형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것이며, 언어 놀이에서 규칙에 따르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언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규칙성이 없는 언어를 ‘사적 언어’라고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사적 언어는 규칙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나’ 자신 또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언어 놀이가 불가능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사용 주체들의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고 본다. 이는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일 수 있으려면 ‘정의의 일치’뿐만 아니라 ‘판단에서의 일치’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의의 일치’는 낱말에 대한 정의의 일치를 말하며, ‘판단에서의 일치’는 ‘낱말 적용 방식의 일치’, 궁극적으로 ‘어떤 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서의 일치’를 말한다. 가령 ‘불다’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려면, 그 말의 정의를 알아야 하고 그 정의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불다’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도 일치해야만 한다. 어떤 사물의 색에 대해서 ‘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반응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불다’라는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삶의 형식의 일치’는 곧 정의와 판단에서도 일치함을 의미한다. 즉 언어 사용이 일치한다는 것은 동일한 삶의 형식을 공유함을 나타낸다.

삶의 형식의 일치와 언어 규칙의 작동 가능성의 전제라는 것은 사적 언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사적 언어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유아론적 세계의 언어이다. 언어의 규칙이 작동 가능한 영역은 ‘나의 의식’의 유아론적 세계가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타인들을 포함한 공동체, 즉 ‘우리들의 삶’의 세계이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철학적 제재들의 허구성을 시사한다.

16. 윗글을 통해 ‘비트겐슈타인’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기 철학에서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 ② 전기 철학에서 문장에 사용되는 낱말들의 의미는 문장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 ③ 후기 철학에서 언어 놀이의 규칙이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 ④ 후기 철학에서 ‘사적 언어’는 이해할 수 없어 언어 놀이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⑤ 후기 철학에서 삶의 형식의 일치와 언어 놀이에서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고 보았다.

17. 윗글의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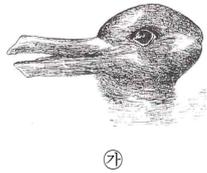
(가) (건축가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짓고 있다.)  
 건축가: 벽돌!  
 조 수: (벽돌을 건축가에게 가져다준다.)  
 건축가: 석판!  
 조 수: (석판을 건축가에게 가져다준다.)

(나) (태권도 사범의 지시에 따라 훈련생이 격파 시범을 보여 주고 있다.)  
 사 범: 벽돌!  
 훈련생: (벽돌을 격파한다.)  
 사 범: 석판!  
 훈련생: (석판을 격파한다.)

- ① (가), (나)에서 '벽돌', '석판'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것은 목적에 따라 규정된 언어 놀이의 기능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② (가), (나)에서 '벽돌', '석판'을 사용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건축가와 조수가, 사범과 훈련생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형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가), (나)에서 건축가와 조수, 사범과 훈련생의 의사소통은 언어 놀이로 언어가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활동의 일부로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가), (나)에서 '벽돌', '석판'이 발화되었을 때 조수와 훈련생이 서로 다른 행위를 한 것은 그들이 각각의 규칙에 따라 언어 놀이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가), (나)에서 조수와 훈련생이 '벽돌'과 '석판'이란 말을 벽돌과 석판이라는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만 안다면 각각의 상황에서 언어 놀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18 <보기>와 [A]를 관련 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형식'과 관련하여 ㉞에 대해 논의하였다. ㉞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토끼로도, 오리로도 보이는 것이다.

- ① ㉞을 '오리'라고만 말하는 사람들끼리는 오리의 형상에 대한 '정의의 일치'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판단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② ㉞은 대상을 보는 방식이 삶의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㉞을 설명하는 언어는 삶의 형식과 무관하게 존재할 것이다.
- ③ '오리'나 '토끼'라는 낱말에 대한 '정의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㉞을 바라보는 방식이 일치하면 ㉞을 설명하는 언어 사용이 일치할 것이다.
- ④ 토끼나 오리의 형상에 관한 '삶의 형식의 일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㉞을 '토끼'나 '오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판단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 ⑤ 동일한 낱말을 발화하면 필연적으로 그 낱말에 대한 '판단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낱말의 사용 여부가 ㉞을 '오리'나 '토끼'로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언어 표현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 ② 언어가 그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③ 언어 놀이의 규칙이 언어 놀이들 간의 유사성과 관련이 없음을 나타낸다.
- ④ 각각의 언어 놀이를 다른 언어 놀이와 뚜렷하게 구별시켜 주는 변별점이 된다.
- ⑤ 언어 표현이 지칭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이 지닌 공통된 성질이 그 표현의 의미가 됨을 나타낸다.

20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의식'에 기초한 사적 언어는 규칙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로군.
- ② '사적 언어'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루어져야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로군.
- ③ '나의 의식'의 유아론적 세계를 설명하는 언어의 규칙은 '사적 언어'의 규칙과 일치한다는 것이로군.
- ④ '사적 언어'에 규칙성이 없다는 것은 '나의 의식'에 관한 언어가 언어 놀이에 자유롭게 사용된다는 것이로군.
- ⑤ '나의 의식'이 '우리들의 삶의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가 언어의 규칙을 생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로군.

◆ 17 수능 16~20번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 파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파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파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파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 도달한다.

파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파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파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 ㉢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17.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는 ㉠와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 ⑤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19.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2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잇따른다      ② 다다른다      ③ 봉착한다
- ④ 회귀한다      ⑤ 기인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답하십시오. [문 39 ~ 문 40]

경험과학의 방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경험과학’이라 부르는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에 따르면 경험과학의 특징은 이른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있다. 가령 어떤 추론이 관찰이나 실험 결과를 서술한 것과 같은 단칭 진술로부터 가설이나 이론과 같은 보편 진술로 나아갈 경우 그런 추론을 보통 ‘귀납적’이라고 한다.

논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단칭 진술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들로부터 보편 진술을 추론하는 것이 당연한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얻은 결론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의 흰 고니를 관찰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고니는 희다는 결론을 정당화해 주지는 못한다. 귀납 추론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정당화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귀납의 문제’라고 부른다.

우리가 귀납 추론을 정당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귀납의 원리를 확립해야 한다. 귀납 추론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진술이 바로 귀납의 원리가 될 것이다. 귀납 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귀납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과학의 방법이다.

그런데 어떤 진술이든지 그 진술의 부정은 자기모순이거나 자기모순이 아닐 것이다. 어떤 진술의 부정이 자기모순일 때 우리는 그런 진술을 ‘분석적 진술’이라 부른다. 반면 어떤 진술이 ‘종합적 진술’이라 하면 그것의 부정이 자기모순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진술이 된다. 그런데 귀납의 원리는 분석적 진술일 수 없다. 사실 순수하게 논리적 성격을 지닌 귀납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귀납의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귀납의 원리는 종합적 진술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진술의 부정이 자기모순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진술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원리가 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만하다는 점을 합리적 근거에 의해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야기된다.

귀납 추론을 믿는 사람 가운데에는, 과학은 모두 예외 없이 귀납의 원리를 받아들이며, 어느 누구도 이 원리를 의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과학이 귀납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하더라도 논리적 모순을 초래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귀납의 원리와 연관해 모순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흄의 저작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그런 모순을 피하고자 할 경우 또 다른 난점에 직면한다는 사실도 그 책에 나와 있다.

귀납의 원리도 다시 보편 진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귀납의 원리가 참이라는 사실을 경험에 의해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처음 귀납의 원리를 도입할 때 생겨났던 바로 그 문제가 다시 생겨나고 만다. 귀납의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시 귀납 추론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귀납 추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고단계의 귀납의 원리를 가정해야 한다. 또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따라서 귀납의 원리의 근거를 경험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만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한 퇴행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문 39. 윗글에서 글쓴이가 밑줄 친 ㉠을 이끌어내는 데에 사용한 논증 형태와 같은 것은?

- ① 철수나 영희가 범인이다. 철수가 범인이 아니다. 따라서 영희가 범인이다.
- ② 철수나 영희가 범인이다. 철수가 범인이다. 따라서 영희는 범인이 아니다.
- ③ 철수나 영희가 범인이다. 철수가 범인이다. 따라서 영희도 범인이다.
- ④ 철수가 범인이려면 영희는 범인이 아니다. 철수가 범인이다. 따라서 영희는 범인이 아니다.
- ⑤ 철수가 범인이려면 영희는 범인이 아니다. 영희가 범인이다. 따라서 철수는 범인이 아니다.

문 40.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귀납의 원리가 단칭 진술이라면 글쓴이의 주장은 약화된다.
- ② 귀납의 원리가 분석적 진술이라면 글쓴이의 주장은 약화된다.
- ③ 정당화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귀납 원리가 있다면 글쓴이의 주장은 약화된다.
- ④ 귀납 추론의 정당화를 위해서 반드시 귀납의 원리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글쓴이의 주장은 약화된다.
- ⑤ 한 단계에서의 귀납의 원리가 그 다음 단계의 귀납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글쓴이의 주장은 약화된다.

## ◆ 11년 11월 고2 17~20번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자신이 가진 특정한 능력을 통해 궁극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긍정하는 입장을 서양철학에서는 표상주의라고 한다. 표상주의는 근대인식론의 바탕을 이루며, 서양철학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이와 달리 신실용주의 철학자 로티는 표상주의를 비판한 ‘반(反)표상주의’를 통해 서양철학의 새로운 방향을 ㉔ 모색하였다.

로티의 반표상주의는 넓은 의미로 ‘반(反)플라톤주의’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진정한 진리의 세계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데아를 모사(模寫)한 거짓 세계라고 보았다. 이렇게 진리의 세계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고 보는 플라톤의 관점은 서양철학의 역사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되었다. 이후 플라톤의 전통을 ㉕ 계승한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진리의 세계를 비출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본질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로티는 이들이 진리의 세계를 비춘다고 믿었던 거울이 비춘 것은 사실은 자신의 모습이며, 이들이 이야기한 진리는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역사적이고, 개별적이며, 상대적인 것임을 철학의 흐름 속에서 확인하였다. 즉 로티는 이들의 거울에 비친 진리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로티는 거울과 같은 인간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울이미지(mirror image)’는 우연히 발생한 하나의 비유에 ㉖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로티는 이처럼 우리가 궁극적 진리를 비출 수 없다면 결국 철학은 세계에 대해서 각자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재서술하는 문학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데 소설 쓰기나 시 쓰기와 같은 문학적 작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로티는 새로운 철학적 방향으로 ㉗ ‘문학적 문화(literary culture)’를 제안했다.

로티가 말하는 문학적 문화는 관념적 차원에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대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물음들을 통해서 ㉘ 탐색할 수 있는 참된 의미들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다. 또한 누구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참된 의미들을 창조하고, 이를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는 문화이다. 로티는 문학적 문화를 통해 사적 영역에서는 자신의 인식과 신념을 끝없이 쇄신하고, 공적 영역에서는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해 다른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인정하면서 ‘우리’라는 연대성을 ㉙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1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상주의는 서양철학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 ② 반표상주의는 플라톤주의와 대립되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 ③ 플라톤의 전통을 계승한 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진리를 비추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 ④ 로티는 문학적 문화를 관념적 차원에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⑤ 로티는 플라톤의 전통을 계승한 철학자들이 내세운 진리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18. ㉠의 특성이 나타난 현대인의 삶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속 집단 속의 삶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모습
- ② 유행을 무분별하게 따르기보다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
- ③ 행동이 앞서는 실천적 삶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우선시하는 모습
- ④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구성원 간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하는 모습
- ⑤ 지속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일회적이고 표면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모습

19. 위 글의 '로티'가 <보기>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듀이는 삶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탐구'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듯 탐구의 대상도 끊임없이 달라지며, 문제는 같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점에서 듀이는 서양 철학자들이 진리라고 말해 왔던 것들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① 듀이는 플라톤주의 철학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군.
- ② 듀이는 연대의식을 추구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있군.
- ③ 듀이는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부정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군.
- ④ 듀이가 말한 삶 속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는 문학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 있겠군.
- ⑤ 듀이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 것은 자신이 창조한 의미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문화와 관련이 있군.

20. a~c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a : 알려주었다    ② b : 이어받은    ③ c : 지나지 않은
- ④ d : 찾을    ⑤ e : 넓혀